



아빠 기러기

- “너는 우리 가운데에서 제일 어리지만 가장 열심히 했어!”



형 기러기

- “막내야, 너는 작은 날개를 가졌지만 그 날개 안에 숨겨진 너만의 힘이 있단다.”



누나 기러기

- “너는 정말 대단해!”



다른 기러기들

- “너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기러기는 보지 못했단다. 조금만 더 힘을 내렴.”